



청정 제주 겨울바다 즐기기 31일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겨울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공소시효 지난 뒤 고발, 결국…

경찰, 공항 고도제한 위반 송신탑 수사 불송치  
“공소시효 3개월 지나 위반시설에 책임 못 물어”  
제항청, 위반사실 2019년 인지… 작년 10월 고발

속보=제주지방항공청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처리로 제주공항 주변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제주부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내 민영 방송사인 A방송사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를 따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항청은 A방송사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어기고 방송 송신탑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제주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은 제주공항에서부터 구역별로 길게는 15km, 짧게는 4km까지 설정돼 있으며 총면적은 181km<sup>2</sup>에 이르고 있다.

A방송사 송신탑은 제주공항 남쪽 방면에 있는 제주시내 한 오름 정상에 지난 2017년 7월 설치돼 그동안 운영돼왔다. 해당 구역의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은 오름 정상 높이 만큼인 296m로, 송신탑은 이 기준을 16m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장애물 제한표면을 넘어선 시설물이라고 해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비행 안전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A방송사 통신탑은 이런 예외 설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19년 장애물 제한표면 경계를 측량하던 중 기준에 어긋난 A방송사 송신탑을 발견해 제항청에 통보했다.

이후 제항청은 2020년부터 철거를 해달라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A방송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3개월 지난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물제한표면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A방송사의 시효는 2022년 7월 만료됐다. 제항청이 고발을 2년여간 미루다 형사 처벌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제항청 관계자는 왜 고발이 늦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무조건 고발할 게 아니라 우선 시정 요구부터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며 “이후 국토부와 처리 대책을 정하기 위해 수차례 논의했는데 고발 지침을 하달 받은 시기가 2022년 10월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A방송사 송신탑 처리 대책에 대해 국토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대응 ‘무사안일’

日 정부 올해 봄~여름 방류 예상… 도, 기금 지원 등 보상안 대책 그쳐

제주 수산물 신뢰 방안 등 실질적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해 봄에서 여름사이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당국의 대응 방안은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등 보상 형식의 대안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에서 7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방류 후 오염수의 제주 해역 유입 시점의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독일의 한 해양 연구소에서는 방사성물질 오염수는 방류 7개월 후 제주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 피해액이 4483억원에 달할 것이라면 예측도 나오면서 제주 수산물업계

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118억원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편성한 대응 예산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억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10억원, 수급안정기금 100억원, 방사능 및 중금속 분석 1억원 등 보상 형식의 예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 해역에 원전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국민 건강이나 해양 생태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면서 방사능 측정장비 보급·지원, 소비자 신뢰 회복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일본 방류 방침

이 공개된 직후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 현재 지난해 8월부터 2단계(주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부지사가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와 함께 국가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방류한 원전 오염수가 제주로 유입될 경우 제주 수산물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정부에도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부족한 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해 확보해 나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9456@ihalla.com

## 경찰 대표적 비인기 부서의 반전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체 인원 40% 승진

제주경찰 내 대표적인 비인기 부서로 꼽히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전체 인원의 40%의 승진자를 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

반기 제주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원 22명 중 약 40%인 9명이 승진자로 결정됐다. 계급별로는 총경 1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2명 등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종규 경감은 외국에 코리아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속여 제주도민 133명 등 2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13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성수환 경사는 40억원대 규모의 전세대출 사기 피의자 15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횡단보도서 ‘쿵’… “사람인 줄 몰랐다”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떠난 70대 운전자 입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떠난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

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뭔가 부딪힌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꽃집 화재… 인명피해 없어

제주시의 꽃 판매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49분쯤 제주시 화북1동의 꽃 판매점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 인근 상인이 2분 만에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분과 집기류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88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

• 제주은행

• 제주국제공항

• 국제보청기

• 한림종합병원

• 실내수영장

국제보청기 ☎ 064-725-92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원터프린스	3년생
감진령	3년생
평향묘	3년생
자자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제주) 리모델링**  
辛一(일) 祥(조) **직원 수시모집**

##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 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계묘년(癸卯年) 설날 고객사은행사!!  
① 20만원 상당 산삼배양근 ② 15만원 상당 UV전자습기제거제  
※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HITA  
2021  
제주국제공항 대상 1위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들 훈련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리사 사거리 복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비스터미널 사거리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

• 제주은행  
• 제주국제공항  
• 국제보청기  
• 한림제작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